

민주-평화 자존심 건 한판 승부

■ 광주 복구청장

광주 복구청장 선거는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의 자존심을 건 한 판 승부가 예상된다.

북구갑·을 2곳의 지역구에서 각각 김경진·최경환 국회의원을 보유하고 있는 평화당은 복구를 사수하기 위해 구청장 선거에도 전력을 쏟고 있다. 이에 맞서 민주당도 최근 당내 경선을 마무리하고 지역위원회 일부 조직을 구청장 후보 캠프에 파견하는 등 팽팽한 당 대 당 대결을 준비하고 있다.

북구지역 현안으로는 광주역·옛 광주교도소·전남방직 등 대규모 유류부지 활용 방안과 북구순환도로 개설 등 급격한 사업들이 많다. 또 지방산단인 본촌산단 노후화 문제와 하남산단 리모델링 등의 현안도 산적해 있다.

또 용봉·일곡·삼각·건국·양산동 등 급격하게 인구가 유입된 지역이 있는 반면, 중흥·임동·신안동 등지에서는 도심공동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도 복구 지역의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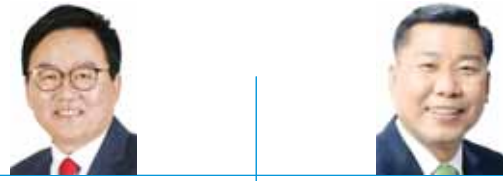
지역간 편차가 크고, 석곡·건국동 등도 농복합지역도 많아 후보들이 지역 공약을 많은데 고민하고 있다.

민주당은 문인(59)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을 후보로 정하고 표밭을 다지고 있다. 문인 예비후보는 1984년 기술고등고시 합격 이후 중앙정부와 광주시를 오가며 공직 생활을 했다.

광주시 지하철건설본부장, 건설국장을 거쳐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복구 복구청장을 역임하는 등 행정 경험이 많은 것이 장점이다.

특히 문 후보는 국토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지원국장을 역임하는 등 정부와 인맥이 두텁고 지하철 건설사업, 도심재개발사업, 환경기초사업, 소각장 건설

■ 복구청장 후보



정당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이름(나이)	문인(59)	이은방(55)
주요경력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	전 광주시의회 의장
주요공약	·호남고속도 동광주IC~광산IC 확장 추진 ·노후화된 본촌산단단지 환경 개선 추진 ·청년창업 종합지원제도 마련	·공·폐기 이용 마을 주차장 확보 ·사회복지시설 지원 강화 ·5·18민주화운동 체험공간 조성

민중 문인, 공직 경험 풍부... 정부와 인맥 두터워

평화 이은방, 지역 국회의원 지원 든든한 조직력

등 행정 전 분야에서 쌓은 전문성을 앞세워 지지세를 결집하고 있다.

과거 중앙 정부 근무 경험을 통해 만들어진 호남고속도 동광주IC~광산IC 확장 추진, 노후화된 본촌산단단지 환경 개선 추진, 청년창업 종합지원제도 마련, 북구 여성 행복유니온센터 운영,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공약을 내놨다.

문 후보는 “서민금융진흥원 경험을 살려 서민금융진흥원 또는 소상공인진흥공단 협조체제를 마련하고, 회계관리와 마케팅 및 홍보 컨설팅 등 복지전담체계와 연계한 맞춤형 지원계획을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평화당 이은방(55) 예비후보는 광주시의회의장과 광주발전 거버넌스 연구모임 대표, 31사단 이전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광주시 복구 배드민턴 상임부회장을 맡는 등 사회 전반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특히 제5대 북구의원과 광주시의원을 지내는 등 지방정치 경험이 풍부하다는 게 장점이다.

또한, 평화당 소속의 김경진·최경환 지역구 국회의원이 총선에 앞서 복구청장 선거에 집중 지원을 하고 있어 든든한 조직력도 확보했다.

이 후보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 마을 경제 발전의 동력으로 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 물적자원과 역사, 문화자원, 공동체 자원, 활용 가능한 공공, 재정 자원 등을 파악하여 사회적기업과 연계하는 새로운 사업모델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공·폐기 이용 마을주차장 확보, 사회복지시설 지원 강화, 바우처 사업 확대 실시,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실시, 5·18민주화운동 체험공간 조성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김삼호 독주 속 대항마 누구?

■ 광주 광산구청장

광주 광산구청장 선거는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무소속 후보 3파전으로 치러진다. 지역구 2곳의 국회의원을 모두 배출한 바른미래당이 후보를 내지 못하면서 민주당 김삼호(52) 후보의 독주 속 평화당 이정현(60) 후보가 경쟁을 펼치고 있다. 또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장성수(58) 후보가 뒤늦게 출사표를 던졌다.

민 구청장의 사장 출마에 따라 무소속이 된 광산구청장 선거는 민주당 경선 전부터 10여명이 한마평에 오르는 등 과열 양상으로 진행됐지만 민주당 경선이 마무리되면서 후보군이 압축, 경쟁이 본격화했다.

이번 선거는 광주시장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민 구청장의 조직을 같은 당 김삼호 후보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흡수하고 관리할 수 있을지, 그리고 평화당 광산갑 지역위원장인 이정현 후보가 광산을 지역을 제대로 추스를 수 있을지 여부가 승부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또 ‘광산 토박이’ 장성수 후보의 ‘무소속 돌풍’ 여부도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광산구 현안으로는 어등산관광단지 개발, 송정역복합환승센터 조성, 군공항이전 등을 꼽을 수 있다. 특히, 광산은 농촌과 도시가 결합한 농복합지역인 탓에 관련 민원도 많은 곳이다. 수완지구 등 인구유입이 많은 곳의 교육 여건 개선과 구도심·신도심 간 불균형 해소 문제 등 시급히 풀어야 할 숙제도 많다. 또 침체한 지역 산단 활성화와 문제도 지역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 김삼호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돈독한 인연, 중앙 정부와의 폭넓은 인맥이 강점이다.

■ 광산구청장 후보



정당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무소속
이름(나이)	김삼호(52)	이정현(60)	장성수(58)
주요경력	전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전 광주시의회 운영위원장	전 광주시 국장
주요공약	·사회적경제조직·지역공동체 조직 연계 강화 ·지역내 기업·공공기관·공동체의 네트워크 구축 ·광산구 산단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도시계획 수립·도시계획 일몰제 정착화 ·구도심 주거환경 개선 사업 추진 ·명문사립학교 신설과 유치	·관광교육지원청 원상회복 추진 ·권역별 소통방 운영 ·내부 고발자 신변 보장·워크아웃제 도입

지역구 2곳 국회의원 배출 바른미래 후보 못내

평화당 이정현-무소속 장성수 막판 추격 관심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초대 이사장을 지내는 등 광산구외의 인연도 깊다. 성공적인 행정을 펼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민 구청장의 복지·공동체 정책을 이어받아 더욱 발전시키겠다는 점을 강조하며 표밭을 다지고 있다. 주요 공약으로는 사회적경제조직·지역공동체 조직 연계 강화, 지역 내 기업·공공기관·공동체의 네트워크 구축 등을 제시하고 있다.

김 후보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130여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근로자가 인격적으로 존중받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일과 사람, 돈이 물리는 광산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평화당 이정현 후보는 분량농협 조합장 3선을 지내는 등 광산지역 인맥이 넓다. 또 광주시의원,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정책위원장을 지내는 등 지방정치 경험이 풍부하다.

이 후보는 “과밀학급 문제와 삼급학교 전학식 원거리배치 문제는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이며, 열악한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시계획 수립·도시계획 일몰제 정착화, 구도심 주거환경 개선 사업 추진, 명문사립학교 신설과 유치, 관광교육지원청 복원, 청소년복합문화공간과 구·시립도서관 신설, 보육환경과 교사들의 처우 개선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무소속 후보로 나서는 장성수 전 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광주시 대변인과 광주 서구 총무국장 등 공직을 두루 거치며 행정 경험을 쌓아 온 점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그는 광산교육지원청 원상회복 추진, 권역별 소통방 운영, 내부 고발자 신변 보장·워크아웃제 도입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6명 선출 ... 5선거구 민주당 후보 홀로 출마

■ 광주시의원(북구)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주 북구 6곳 선거구에서 6명의 광역의원을 뽑게 된다.

1선거구(중흥1·2·3동, 중앙동, 임동, 신안동)에는 더불어민주당 반재신 전 광주시의원이 재도전하고, 민주평화당 오동오 복구문화원장, 민중당 나규복 전 조선대 법과대학 총학생회장이 경쟁한다.

또 2선거구(우산동, 문흥1·2동, 오지1·2동)는 민주당 이경호 광주시장 청년위원장, 평화당 장희연 광주시장 부대변인이 양자 대결을 펼치고 있다.

3선거구(풍향동, 문화동, 두암1·2·3, 석곡동)에서는 민주당 신수정 전 북구의회 의원, 평화당 김재찬 전남대총동창회 이사가 출마했고 4선거구(용봉동, 삼각동, 일곡동, 매곡동)는 민주당 조석호 전 북구의회 부의장, 평화당 장영희 전 북구의회 의원, 민중당 이선미 광주평화통일교육센터 강사가 출마했다.

이 밖에 5선거구(운암1·2·3동, 동림동)는 민주당 김동찬 전 광주시의원이 홀로 출마했고, 6선거구(건국동, 양산동)는 민주당 김나운 변호사, 평화당 허석진 평화당민생해결특별위원회장이 출마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광역의원 후보

선거구	이름(나이·정당·경력)
제1선거구	반재신(55·민·전 광주시의원) 오동오(50·평·복구문화원장) 나규복(31·중·전 조선대 법과대학 총학생회장)
제2선거구	이경호(46·민·광주시청 청년위원장) 장희연(41·평·광주시청 부대변인)
제3선거구	신수정(45·민·북구의회 의원) 김재찬(52·평·전남대총동창회)
제4선거구	조석호(57·민·전 북구의회 부의장) 장영희(56·평·전 북구의회 의원) 이선미(28·중·광주평화통일교육센터 강사)
제5선거구	김동찬(53·민·전 광주시의원)
제6선거구	김나운(46·민·변호사) 허석진(54·평·평화당민생해결특별위원회)

2선거구 민주-평화-바른미래-민중당 각축

■ 광주시의원(광산구)

광주시 광산구에서는 5곳의 선거구에서 광역의원을 뽑게 된다.

현재 1선거구(송정1·2동, 도산동, 어룡동, 동곡동, 평동, 삼도동, 본광동)에는 민주당 김익주 전 광산구의회 의원, 바른미래당 정전대 전 국민의당 광산갑지역위원회 단장이 출마했다.

또 2선거구(신흥동, 우산동, 월곡1·2동, 운남동)는 민주당 정무장 참봉은광산포럼 공동대표, 바른미래당 문영주 전 전남정책개발연구원 원장, 평화당 문태환 전 광주시의원, 민중당 이미욱 전 광주시

의원이 각축 중이다.

3선거구(비아동, 첨단1·2동, 하남동, 임곡동)는 민주당 김학실 전 KBC광주방송 아나운서, 바른미래당 조승우 전 광산구의회 의장이 출사표를 던졌고 4선거구(신가동, 신창동)에는 민주당 김광란 전 광산구의회 의원, 바른미래당 김동호 전 광산구의원, 민중당 최경미 전 광산구의원이 경쟁 중이다.

5선거구(수완동)는 민주당 이정환 전남대 토목공학과 겸임교수, 바른미래당 김옥자 전 광주시의원이 출마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광역의원 후보

선거구	이름(나이·정당·경력)
제1선거구	김익주(55·민·전 광산구의회 의원) 정전대(57·바·전 국민의당 광산갑지역위원회 단장)
제2선거구	정무장(55·민·참봉은광산포럼 공동대표) 문태환(62·평·전 광주시의원) 문영주(41·바·전 전남정책개발연구원 원장)
제3선거구	이미욱(51·중·전 광주시의원) 김학실(56·민·전 KBC광주방송 아나운서) 조승우(54·바·전 광산구의회 의장)
제4선거구	김광란(47·민·전 광산구의회 의원) 김동호(43·바·전 광산구의원) 최경미(51·중·전 광산구의원)
제5선거구	이정환(39·민·전남대 토목공학과 겸임교수) 김옥자(54·바·전 광주시의원)

민=더불어민주당, 평=민주평화당, 바=바른미래당, 중=민중당

밝은광주안과의 새 이름

신세계안과

7월 1일 이름을 바꿉니다 (현 의료진 그대로)

- 2013년 3D스마일수술 도입
- 3D스마일수술 15,000건 기록 (2018년 2월 28일 기준)
- 레이저 다초점 노안, 백내장 교정술 시행

1566-9988 | 광주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농촌의 새로운 희망

농촌 태양광 농업진흥구역 규제완화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가능

직접 운영하실 분 ▶ 땅만 있으면 발전 설비해 드립니다. ·원금, 이자 배고 6~8% 가능

장기 임대주실 분 ▶ 20년후 기부채납 (임대비 선불로 드립니다)

노후에는 태양광이 효자!!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200KW설치시 연금처럼 월 500만원 교박교박 (25년동안 년평균 6,000만원)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해가온에너지 (주)해가온 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길영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층